

LG전자, LED조명사업 “기사희생”

중기적합업종으로 완제품 생산불가 ... LED모듈 중소기업이 공동구매

LG전자가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소재를 중소기업에게 판매한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LG전자는 11월5일 국내 LED 조명산업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LG전자 LED 모듈공급 협약식 및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모듈공급 협약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 LG전자로부터 가로등과 보안등에 사용되는 LED 모듈을 공동구매해 조명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중심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ED 조명완제품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LED 조명소재를 중소기업에 공급해 LED 모듈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전기강관, 세라믹아크튜브, 나트륨아크튜브 등 핵심부품을 공동구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ED 모듈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1>